

대학생의 외모관련행동과 라이프스타일에 관한 연구

A Study on University Students' Appearance Behavior and Life Style

이은희*

원광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Lee, Eun Hee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WonKwang University

Abstract

The objects of this study were to classify the contents of life style of university student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s between life style and appearance behavior(attitude toward appearance, body satisfaction, clothing attitude), and to examine how appearance behavior was influenced by life styles, male and female variables. The method of the study was survey research by using questionnaires. Subjects were 358(male 175, female 183) university students located in Junrabookdo province. In this statistical analysis, SPSS 11.5 for Windows Program was utilized to calculate frequency, percentage, mean, Factor analysis, Cronbach's α , t-test, Pearson's correlation,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were as follows: Five dimensions of life styles were derived by factor analysis: 'digital orientation', 'material orientation', 'positive activity', 'achievement orientation', and 'frugality'. Male and female variables have significant effects on the life style and appearance behavior. Digital & material orientation were significantly higher for male than for female, whereas positive activity, achievement orientation, and frugality were significantly higher for female than for male. Attitude toward appearance and clothing attitude were significantly higher for female than for male, whereas body satisfaction were significantly higher for male than for female. Positive activity and achievement orientation had positive relations with appearance behavior. Need · value of attitude toward appearance, body satisfaction, Clothing attitude variables except of attract sex attention was influenced by positive activity and achievement orientation of life style. As a conclusion, university students' life style and male and female variables constituted important characteristics which could affect appearance behavior.

Key Words : University Students, Appearance Behavior, Life Style

I. 서론

의복은 제2의 피부로 묘사되고 있을 정도로 인간의 가장 가까운 물질환경인 동시에 자아의 외적 표현이다. 인간은 누구나 아름답고 매력적인 신체를 가지고 싶어하며, 자신이 원하는 이미지를 타인에게 전달하기를 바란다. 또한 표현하고 싶은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자신없는 외모를 보완하기 위하여 의복을 착용한다(정인희, 이은영, 1996; 서혜원, 2003).

최근 성형수술과 다이어트 열풍에 휩싸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외모에 대한 집착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외모는 타인에 대해 가장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이며, 그 사람의 성별, 연령, 사회경제적 지위, 직업 등을 판단하게 하는 상징적 역할을 한다. 또한 오늘날 정보화 사회에서 전달의 중요한 기능을 지니고 있는 외모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모를 보완하고 과시적 효과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화장을 하거나 의복과 장신구를 이용하여 치장하는데 높은 관심을 가지며 심지어는 취약한 신체부위를 성형하기도 한다(전경란, 2002). 특히 의복은 외모관리를 위한 보편적인 도구로 활용되며(Roach-Higgins, Eicher & Johnson, 1995), 자신의 신체에 대한 관념은 의복선호와 의복태도에 영향을 미친다(전경란, 이은희, 2005; 박정은, 정수진, 강경자, 2005). 이러한 외모에 대한 관심이 개인 생활의 한 영역이 될 때 신체 및 의복에 대한 태도는 라이프스타

* Corresponding author: Lee Eun Hee
Tel: 063) 850-6589
E-mail: ehlee@wonkwang.ac.kr

일에 영향 받게 될 것이다.

오늘날 사람들의 의식구조나 행동양식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행동패턴이 다양화, 개성화되어 가면서 인구통계적 요소들이 안고 있는 단조로운 분석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람들의 내재된 욕구나 가치체계에 대해 심층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해주는 라이프스타일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개인의 라이프스타일은 가치관이나 활동영역, 관심분야, 태도 등에 의해 구체화된 생활양식을 의미하므로 시대적 상황이나 집단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나영주, 이은희, 장경자, 2004). 현재의 대학생들은 기성세대와는 다른 디지털 세대로서 외모의 멋을 추구하며, 정보화 사회로 인한 인터넷 사용의 증가 등으로 과거 세대보다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들의 라이프스타일 또한 세분화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발달과정에서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여겨지는 대학생들의 의복 및 외모와 관련된 행동을 알아보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라이프스타일과 인구통계적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오늘날 대학생들의 외모 관련 행동을 이해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라이프스타일의 차원을 조사하고, 둘째, 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외모관련행동과 라이프스타일의 차이를 알아보고, 셋째, 대학생의 라이프스타일과 외모관련행동의 관련성을 파악하며, 넷째, 라이프스타일과 성별변인이 외모관련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자 한다.

II. 선행연구고찰

라이프스타일은 개인의 의복행동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개념으로 인식되어 의류학 연구에서 라이프스타일 연구는 중요시되고 있다(황진숙, 양화영, 2006). 라이프스타일과 외모관련행동과의 관계에서 대체로 외모에 관심이 많고 혁신적이며 자신감 있고 보다 적극적인 사람들이 의복이나 유행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 라이프스타일

추상적인 측면에서 사회 전체의 또는 사회 일부계층의 특징적인 생활양식(Mode of life)인 라이프스타일(life style)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개념 정의되어 왔다(김동기, 1993; Levy, 1963; Alport, 1965; Lazer, 1968;

Wells, 1975; Carmen, 1978). 이를 종합해보면,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생활상의 특성을 나타내는 총체적 행위로 볼 수 있다. 즉, 생활전반에 대한 활동, 관심, 태도, 의견, 가치관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나는 삶의 방식으로서 개인이나 집단에 의해 구체화되고 차별화된 행동양식으로 볼 수 있다.

1980년대 이후 라이프스타일과 의복 관련 연구가 다수 진행되어 소비자를 유형화하여 의복구매행동, 의복평가기준, 의류쇼핑동기와 과소비성향, 브랜드 이미지와 광고 이미지 지각, 의복스타일 평가 및 상황별 의복 스타일 선택, 의복시장 세분화, 상표선호도, 의복행동 등과의 관련 연구가 이루어졌다. 패션 상품의 고유한 특성 때문에 패션마케팅연구에서는 패션 라이프스타일 척도를 사용한 경우가 많으며 대부분 라이프스타일 연구가 여성중심으로 패션의 주요한 활동, 흥미, 의견 등을 관련지어 제시하였다(배혜진, 강윤정, 김대옥, 정인희, 2005). 채서일(1992)은 우리나라의 라이프스타일 유형을 전통적 알뜰형, 합리적 생활만족형, 진보적 유행추구형, 보수적 생활무관심형으로 구분하였는데 이중 20대 대학생은 진보적 유행추구형에 속한다고 하였다. 즉, 전통적인 가치를 거부하고 사회통념지향의 진보적 성향을 가진 집단으로서 구지향적이며 패션을 선도하는 예술선도층이라고 하였다.

의복과 관련된 라이프스타일로 가장 자주 제시되는 유형은 유행추구형, 전통지향형, 알뜰구매/계획구매형, 물질추구형, 여가추구 활동형 이었다. 유행추구형의 소비자는 유행에 대한 관심이 높고 자신의 생활과 활동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쇼핑을 선호하고 사회참여현상이 높았다. 전통지향형 소비자는 상품의 품질, 판매원의 친절을 중요시하며 최신유행과 적극적 활동을 꺼리는 보수적 성향으로 단정하고 심플한 이미지를 선호하였다. 알뜰 구매 혹은 계획구매형 소비자는 계획적 구매와 실용성과 경제성을 중요시하였다. 물질 추구형 소비자는 부와 미와 관심이 많은 집단으로 디자인과 상품의 품질, 신분 상징성과 유행성을 중요시하였다. 여가추구 활동형 소비자는 가격과 실용성을 중요시하였다(김미영, 이은영, 1992; 박남규, 1997; 박만석, 1999; 권보애, 오현정, 2004).

Gutman과 Mill(1982)은 패션 라이프스타일을 패션 상품의 구입과 관련되는 소비자의 태도, 관심, 의견으로 정하고, 패션 라이프스타일을 패션 리더 집단, 추종자 집단, 독립적 집단, 중립적 집단, 무관심 집단, 부정적 집단, 거부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정혜영(1995)은 여대생의 패션 라이프스타일을 패션 리더집단, 패션 추종자 집단, 패션 혐오자 집단으로 세분화하였다.

대학생의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임경복(1991)의 연구에서는 여대생의 라이프스타일을 유행추구집단, 가정지향성 집단, 외부지향성 집단, 보수적-알뜰 집단, 소극침체형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라이프스타일이 진보적 패션추구형은 패션 및 미적 감각 추구의 의생활을 지향하며, 현실순응적 생활 만족형은 주변의식적 구매성향이 높았다. 또한 전통적 알뜰 성실형은 합리적 구매성향이 상대적으로 높아 간편 실용적인 의생활을 지향하며 소극적 생활무관심형은 거의 모든 면에서 소극적인 유형으로 나타났다. 부산지역 고등학생과 대학생, 근로자를 대상으로 캐주얼웨어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 유형별 구매행동 특성에 관해 조사한 김성환, 김봉관, 윤보석(1992)의 연구에서는 라이프스타일을 선도적 사회생활지향형, 현대적 계획생활추구형, 과시적 유행추구형, 무관심형, 개인주의적 근면생활형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고등학생은 개인주의적 근면생활형, 대학생은 현대적 계획생활 추구형과 무관심형, 근로자는 선도적 사회생활 지향형으로 나타났으며, 캐주얼웨어 소비자의 32.7%가 선도적 사회생활 지향형으로 나타났다. 임경복과 임숙자(1993)는 여대생의 라이프스타일로 유행쇼팽관심, 자신감, 가족충실성, 여가충실성, 적극적 자기관리, 보수적 여성, 적극적 활동성, 경제적 자기관리의 8개 요인을 들었다. 남자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황진숙과 이기춘(1998)의 연구에서는 의복관심, 자신감, 사회활동참여, 탐색적 구매, 가정중시, 보수적 남성의 6개 요인을 들었다. 한국과 캐나다 거주 대학생의 라이프스타일의 특성을 비교한 채정숙(1999)의 연구에서는 의생활 영역의 라이프스타일이 패션지향형, 자기현시지향, 간편 실용성의 3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이중 미적 감각 및 패션지향은 캐나다 거주 대학생이 높게 나타났다. 대구와 경북지역의 여대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채정숙(2001)의 연구에서는 라이프스타일을 진보적 패션추구형, 현실순응적 생활만족형, 전통적 알뜰 성실형, 소극적 생활무관심형으로 분류하였다. 서울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20대 여성을 대상으로 한 김선희(2003)의 연구에서는 라이프스타일을 사교적 생활요인, 적극적 가족중심 생활요인, 대중매체의존요인, 자기중심적 생활요인, 과시적 소비요인으로 분류하였다. 과시적 자기중심 생활 집단이 적극적-사교적 가정중심 생활집단보다 체중 조절행동, 미용성형수술, 피부관리행동, 전체화장 등의 외모관리행동의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모관심과 과시적 소비생활형 라이프스타일 특성을 나타내었다. 대학생의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른 신용카드 사용과 의복구매를 조사한 나영주, 이은희, 장경자(2004)의 연구에서는 라이프스타일을 소극적 절약 외모지향형, 비소비 대인관계 추구형, 전통적 현실향유형, 적극적 건강추구형, 실용적 내부지향형, 개방적 유행추구형,

성취적 가족추구형으로 구분하였다. 라이프스타일이 소극적 절약 외모지향형은 피복지출비가 비교적 많았고, 소극적 절약 외모지향형과 개방적 유행추구형은 의류구입시 카드사용을 많이 하였다. 대학생의 라이프스타일 유형과 캐주얼 스타일에 대한 선호를 조사한 배혜진, 강윤정, 김대옥, 정인희(2005)의 연구에서는 라이프스타일의 유형을 현실과시형, 자유체험형, 미래자립형, 사회순응형으로 구분하였다. 캐주얼웨어 차림을 베이직캐주얼, 어덜트캐주얼, 패션캐주얼, 스포츠캐주얼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때, 모든 라이프스타일 유형에서 베이직캐주얼을 가장 즐겨 착용하였으며, 현실과시형은 스포츠캐주얼, 자유체험형은 패션캐주얼, 미래자립형과 현실순응형은 어덜트캐주얼을 선호하였다.

2. 외모관련행동

외모는 타인에 관해 가장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이며, 사회발달과정에서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즉, 외모는 사회적 고정관념의 유력한 원천이며, 한 개인의 신체적 매력은 타인에 의해 사회적 평가의 기초로써 사용되는 사회적 단서이다. 사회발달과정에서 신체의 외모는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능력을 판단하게 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이인자, 이경희, 신호정, 2001). Horn(1975)은 외모에 대한 자기개념이 자존심이나 굴욕과 같은 감정으로 발달될 수 있다고 하였다. 특히 여대생들은 사회적 상호작용이 증가하여 외모가 이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함에 따라 신체매력이나 신체태도를 갖게 되어 체중조절이나 운동, 화장, 신체변화, 의복행동 등으로 외모를 관리하게 된다. 또한 이 시기는 외모가 친구 및 이성과의 사회적 상호관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함에 따라 신체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외모관리행동을 외모에 대한 태도(외모에 대한 욕구·가치·동조)와 신체만족도, 그리고 의복에 대한 태도(유행추구, 개성/자기표현, 이성의 관심유도, 신체모습향상)를 중심으로 조사하고자 한다.

먼저 외모에 대한 태도는 신체적 외모의 중요성과 이상적인 사회기준에 대한 개인의 태도를 의미한다. 외모에 대한 욕구는 자신의 외모가 사회적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 외모변화를 향상시키는 데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하여, 지속적인 외모관리를 하는 것을 의미하며, 외모에 대한 가치는 우리 사회에서 외모에 대하여 갖는 시각에 관한 내용과 매력적인 외모에 대한 실제적인 시각에 대한 내용을 의미한다. 또한 외모에 대한 동조는 사회생활에서 다른 사람들의 외모와의 비교 내지는 그렇

게 보이거나 하는 심리적 압박으로 인해 자신의 행동이나 의견을 바꾸어 타인의 외모를 따르려는 태도를 의미한다(이은희, 2003).

Secord와 Journard(1953)는 신체만족도를 신체의 여러 부분이나 신체 기능에 대한 만족 혹은 불만족의 정도로 정의하였다. Sontage와 Schlater(1982)는 의복과 관련된 자아개념 요소 중에서 신체만족도가 가장 자주 언급되는 요소라고 하였다. 대부분은 자신의 신체에 만족할수록 자신을 존중하며 반대로 신체에 불만족할수록 자신감을 잃고 자신을 비하하게 된다. 외모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볼 때 외모가 다른 사람보다 못하게 되면 신체불만족으로 이어지게 되고 결국 부정적인 자아존중감을 가지게 된다. 신체이미지는 개인이 자신의 신체에 대한 이미지로 신체의 모습, 능력, 효율성에 대한 지각, 태도 행동을 포함하는데(Cash, 1990; Thompson, 1996), 외모는 신체이미지의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신체이미지를 대변하는 것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따라서 외모에 대한 만족도는 개인의 삶에 대한 만족을 결정짓는 중요한 하나의 요소로 여겨지고 있다(Alfonso, Allison, Reder & Gorman, 1996).

대학생, 특히 여대생들은 자신의 외모와 체형에 대한 관심이 높고 실제 체형 및 객관적 비만에 따라 자신의 신체를 인식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신체에 대해 비판적이고 신체의 특정부위에 불만족하고 있었다(정옥임, 1993; 이연희, 1996; 황진숙, 1998; 박우미, 2000; 이영주, 임숙자, 2001; 서화숙, 송정아, 2004; Salem, 1990). 이러한 평가는 자신의 신체에 대하여 왜곡하게 되어 실제 자신의 신체 사이즈와 이상적인 신체 사이즈와의 차이가 크게 되고 결국 부정적인 자기개념을 형성할 수도 있으며 무리한 다이어트나 지나친 성형수술 등을 초래하게 된다. 백희영, 남윤자, 박재경, 김주연(2000)은 여대생들이 과학적인 근거없이 자기 체형에 대하여 잘못 인식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자신의 의복착용이나 의복선택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우려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여대생을 대상으로 자아존중 척도에 신체만족도, 이상적인 신체 이미지의 중요성, 이상적인 신체 이미지로부터의 거리감 등이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Salem(1990)은 이상적인 신체 이미지의 중요성은 신체만족도와 자아존중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신체 이미지를 중요시 여길수록 여대생들은 의복혜택을 통해 신체만족을 유지, 고양시키고자 하였으며(황진숙, 1998), 긍정적인 신체 이미지를 지닌 여대생은 외모와 의복에 대한 관심이 높고 자신을 과시하고자 하였다(김재숙, 이미숙, 김은정, 이해원, 1999). 김용주(1999)의 연구에 의하면 객관적 비만수준, 주관적 비만수준, 이상적 신체 이미지는 신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며,

신체만족도는 의복을 구입할 때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인간은 모두 자신과 타인에 대해 신체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으며, 의복은 여기에서 인간의 신체를 세상과 연결시키는 동시에 분리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여대생들은 과학적인 근거없이 자기 체형에 대해 잘못 인식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자신의 의복착용이나 의복선택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백희영, 남윤자, 박재경, 김주연, 2000). 또한 여대생은 신체에 대하여 현실과 이상행과의 차이가 크며 그에 따라 의복행동 또한 신체에 대한 만족감을 높이기 위해 이루어지는 것이며 중요한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박우미, 2000). 여대생의 신체적 특징에 따른 의복행동 및 헤어스타일 행동에 대한 박주미와 정옥임(2005)의 연구에서는 키가 클수록 친구나 연예인을 동조하는 의복동조성과 고급 브랜드를 추구하는 의복 과시성, 패션과의 조화를 중요시하는 의복 심미성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반면, 키에 비해 뚱뚱하다고 생각하는 여대생일수록 의복의 편의성을 추구한다고 하여 신체적 조건에 만족할수록 대담한 스타일이나 색상을 통해 외모에 대한 자신감을 표현한다고 하였다. 신체에 만족할수록 심미성을 추구하며 불만족할수록 의복이나 헤어스타일의 변화와 유행을 추구하기 보다는 활동하기 편하고 다른 사람의 시선이 집중되지 않는 무난한 스타일을 추구하였다. 김정순(2002)의 연구에서 여대생들은 자신의 아름다움에 대한 미적 측면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용돈에 따라 심미성과 유행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이상적인 신체 이미지의 중요성은 신체 만족도와 자아존중감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Salem, 1990; 심정은, 1996), 자신의 의복이나 신체에 자신감을 가질수록 유행선도력이 높았다(이연희, 1996). 이러한 여대생들의 신체에 대한 불만족은 외모관리행동이나 의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여대생들은 자신의 신체 중 만족스럽지 못한 부위는 체중조절을 통해 바꾸려고 노력함과 동시에 의복을 통해서 보완하는 등 여러 가지 외모관리 행동을 한다(서화숙, 송정아, 2004). 정용희와 김창현(2000)의 연구에서 남자대학생들의 신체외모는 외모에 대해 신경을 썼으나 자신의 체형이 보통이라고 생각하는 학생이 가장 많았고, 마른체형이라기 보다는 뚱뚱하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더 많았다. 신체만족도는 평균 3점이하였고 키에 대한 불만이 컸으며 서구형의 체형을 이상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남자대학생들은 외모에 대한 어느 정도의 관심은 있지만 의복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인하여 의복을 통한 신체보완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었다. Richards & Hawthorne(1971)의 연구에서도 남자 대학생들은 기능에 더 관심이 높고 그런 이유로 운동을 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대학생 시기는 외모가 친구 및 이성과의 사회적 상호관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함에 따라 신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게 되고 이것이 체중조절, 화장, 신체 변화, 의복행동 등의 외모관리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Horn & Gural, 1981). 따라서 Goffman(1965)은 외모관리행동을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외모를 나타내 보일 때 자신이 기대하는 대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여러 도구 즉, 의복, 화장 등 액세서리 소품 등을 사용하는 것의 의미하는 정체성 도구라 하였다.

I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전라북도에 소재 대학교에 재학중인 남녀 대학생을 임의 추출하였다. 조사 시기는 2005년 9월 중에 실시되었다. 회수된 총 400부의 설문지 중 불완전한 응답을 제외한 358부를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적 특성분포는 먼저 성별로는 남학생이 175명(48.9%), 여학생 183명(51.1%) 이었다. 학년은 1학년 151명(42.2%), 2학년 66명(18.4%), 3학년 86명(24.0%), 4학년 55명(15.4%) 이었다. 부모의 학력은 고졸이 각각 189명(52.8%), 239명(66.8%)으로 가장 많았다. 부모의 직업에서 아버지의 직업은 사무직이 116명(32.4%)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서비스직이 51명(14.2%), 판매직 44명(12.3%)으로 나타났다. 어머니는 전업주부(44.7%)보다 취업주부(55.3%)가 조금 많았으며, 취업한 어머니의 직업으로는 판매직이 53명(14.8%)으로 가장 많았다.

2. 측정도구

본 연구는 조사연구방법으로 질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측정도구는 라이프스타일과 외모관련행동으로 구성되었다. 모든 설문문항은 5점 Likert형 척도로 측정하였다.

먼저 라이프스타일은 선행연구(정혜영, 1995; 송원영, 이명희, 2001; 이명희, 2003)를 참조하여 본 조사대상자에 맞게 연구자가 수정한 문항 총 2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외모관련행동은 외모에 대한 태도, 신체만족도, 의복에 대한 태도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먼저 외모에 대한 태도는 신체적 외모의 중요성과 이상적인 사회기준에 대한 개인의 태도를 의미한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

Heinberg 등(1995)이 개발한 문항(sociocultural attitude toward appearance)과 이은희(2003)의 연구를 참조하여 본 연구에 맞게 연구자가 수정하여 사용하였으며, 외모에 대한 동조, 외모에 대한 가치, 외모에 대한 욕구로 각각 10문항씩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각 변인의 Cronbach's α 신뢰도 계수는 .81, .80, .85이었다. 신체만족도는 개인이 신체의 각 부분에 대하여 만족하거나 불만족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김양진(1996)과 전경란(2002)의 연구를 참조하여 신체만족도의 부위를 얼굴, 상반신, 하반신, 전신으로 분류한 15개 항목에 대한 만족도를 5점 척도로 조사하였으며, Cronbach's α 신뢰도는 .92이었다. 의복에 대한 태도는 선행연구(조선명, 1999; 이은희, 2003)를 참조하여 유행추구, 개성/자기표현, 신체모습향상, 이성의 관심유도에 관한 내용을 각각 4문항씩 택하여 사용하였으며, Cronbach's α 신뢰도 계수를 순서대로 보면 .81, .75, .88, .76이었다. 인구통계적 변인은 대학생의 성별, 학년, 부모의 학력과 직업을 조사하였다.

3.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분석을 위하여 수집된 자료는 SPSS 11.5 for Windows Program을 이용하여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주요 변인의 분포를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대학생의 라이프스타일의 차원을 파악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하였고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였다. 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라이프스타일과 외모관련행동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라이프스타일과 외모관련행동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적률상관관계로 분석하였다. 외모관련행동에 대하여 라이프스타일과 성별 변인이 동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결과 및 논의

1. 라이프스타일의 요인분석

대학생의 라이프스타일의 차원을 알아보기 위하여 라이프스타일 20문항에 대하여 주성분분석과 Varimax 회전법에 의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때 고유치 1이상의 기준에 의하여 요인과 문항의 내용을 검토하면서 요

인에 적합하지 않은 3개 문항이 제외되고, 5개 요인의 17개 문항이 선택되었으며 그 결과는 <표 1>과 같다.

<요인 1>은 컴퓨터나 인터넷 사용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디지털 성향과 관련된 내용이며 요인 부하량은 .51이상이고 모두 4문항이 포함되었다. 고유치는 3.05이고 설명력은 16.95%이었다.

<요인 2>는 봉급이나 사업가에 대한 관심이 포함된 물질지향성에 관련된 내용이며 요인 부하량은 .75이상이고 모두 3문항이 포함되었다. 고유치는 2.74이고 설명력

은 15.24%이었다.

<요인 3>은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태도가 포함된 적극적 활동성과 관련된 내용이며 요인 부하량은 .55이상이고 모두 3문항이 포함되었다. 고유치는 1.53이고 설명력은 8.54%이었다.

<요인 4>는 성취하려는 욕구, 장애문제에 대한 확신 등 성취지향성과 관련된 내용이며 요인 부하량은 .63이상이고 모두 3문항이 포함되었다. 고유치는 1.43이고 설명력은 7.97%이었다.

<표 1> 라이프스타일의 요인분석

요인	요인부하량
<p><요인 1> 디지털성향</p> <p>뚜렷한 목적이 없어도 인터넷을 한다. .77 여가시간에 주로 컴퓨터를 하며 지낸다. .72 컴퓨터 앞에서 거의 밤을 샌 적이 있다. .54 컴퓨터에서 채팅 같은 것을 통해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움을 느낀다. .51</p> <p>변량(%) = 16.95 고유치 = 3.05 α = .71</p>	
<p><요인 2> 물질지향성</p> <p>무슨 형태의 일이든 돈을 많이 벌어야 성공했다고 할 수 있다. .77 무엇보다도 봉급이 많은 직장이 좋다고 생각한다. .75 성공한 학자보다는 성공한 사업가가 좋다. .75</p> <p>변량(%) = 15.24 고유치 = 2.74 α = .70</p>	
<p><요인 3> 적극적 활동성</p> <p>사교적인 성격으로 남과 친하게 지내기를 좋아한다. .72 나는 친구들의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66 나는 모임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편이다. .55</p> <p>변량(%) = 8.54 고유치 = 1.53 α = .63</p>	
<p><요인 4> 성취지향성</p> <p>나는 계속하여 무엇인가를 성취하려는 욕구를 갖고 있다. .71 나는 나의 장애문제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다. .65 나는 한 번 마음먹은 일은 꼭 해내려고 한다. .63</p> <p>변량(%) = 7.97 고유치 = 1.43 α = .67</p>	
<p><요인 5> 경제지향성</p> <p>용돈을 절약해서 저축을 한다. .68 꼭 필요한 것이 아니면 잘 사지 않는 편이다. .67 용돈을 절약하려고 노력을 한다. .61 근검절약에 솔선수범한다. .59</p> <p>변량(%) = 6.34 고유치 = 1.14 α = .60</p>	

<요인 5>는 절약 및 저축하는 태도인 경제지향성과 관련된 내용이며 요인 부하량은 .59이상이고 모두 4문항이 포함되었다. 고유치는 1.14이고 설명력은 6.34%이었다.

각 요인의 Cronbach's α 신뢰도는 각각 $\alpha=.71$, $\alpha=.70$, $\alpha=.67$, $\alpha=.63$, $\alpha=.60$ 으로 나타났다.

2. 성별에 따른 외모관련행동과 라이프스타일

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외모관련행동과 라이프스타일의 차이를 t-검정으로 조사한 결과는 <표 2>, <표 3>과 같다. 먼저 성별에 따른 라이프스타일의 차이에서 디지털성향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았으며($p<.001$), 적극적 활동성($p<.01$)과 성취지향성($p<.001$)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외모관련행동변인인 외모에 대한 태도 욕구·가치·동조와 신체만족도 모두 성별에 따라 $p<.001$ 수준에서 아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외모에 대한 태도는 여학생이 높았으나, 신체만족도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았다. 다음으로 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의복에 대한 태도에 따른 차이에서 의복의 유행추구($p<.001$), 개성/자기표현($p<.05$), 신체모

습향상($p<.01$), 이성의 관심유도($p<.01$)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높게 나타나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남자가 여자보다 신체만족도가 높았던 것은 선행연구(고애란, 김양진, 1996; Kim & Lee, 1998; 이명희, 2003)와 일치한다. 본 연구 결과 남학생들은 외모관련행동 중 의복에 대한 태도가 낮게 나타났다. 이것은 Richard와 Hawthorn(1971)의 연구에서와 같이 남자대학생들은 외모보다 신체의 기능에 더 관심을 가지므로 신체를 의복과 분리시켜 본다는 연구결과와 어느 정도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즉, 남자대학생들은 외모에 어느 정도의 관심은 있지만 의복을 통한 신체보완에는 관심이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 라이프스타일과 외모관련행동의 관계

대학생의 라이프스타일과 외모관련행동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적률상관관계로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라이프스타일의 디지털성향은 의복에 대한 태도 중 유행추구, 신체모습향상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디지털성향의 라이프스타일을 지닌 대학생들은 유행을 추구하고 의복을 통해 신체모습을 향상하고자 하였다. 라이프스타일의 물질지향성은 외모관련행동의 신체만족도, 유행추구, 개성/자기표현, 신체모습향상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물질지향적인 라이프스타일을 지닌 대학생들은 신체만족도가 높고, 유행을 추구하고 개성을 표현하며 의복을 통해 신체모습을 향상하고자 하였다. 적극적 활동성은 외모관련행동 모든 변인에게, 성취지향성은 유행추구를 제외한 모든 변인에게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적극적 활동성과 성취지향성을 지닌 대학생들은 외모에 대한 욕구·가치·동조 의식이 높으며, 신체만족도가 높고 의복

<표 2> 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라이프스타일의 차이 (n=358)

라이프스타일	성별	남 (n=175)	녀 (n=183)	t
디지털성향		3.18	2.90	4.065***
물질지향성		3.30	3.26	.531
적극적활동성		3.29	3.47	-2.999**
성취지향성		3.52	3.75	-3.426***
경제지향성		3.10	3.15	-.894

** $p<.01$, *** $p<.001$

<표 3> 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외모관련행동의 차이 (n=358)

외모관련행동	성별	남 (n=175)	녀 (n=183)	t
외모에 대한 태도	외모에 대한 욕구	3.14	3.30	-3.032***
	외모에 대한 가치	3.24	3.45	-3.891***
	외모에 대한 동조	3.00	3.23	-3.812***
신체만족도		3.22	2.94	4.778***
의복에 대한 태도	유행추구	2.94	3.13	-3.620***
	개성/자기표현	3.28	3.38	-2.037*
	이성의 관심유도	3.12	3.29	-2.935**
	신체모습향상	3.46	3.65	-2.589**

* $p<.05$, ** $p<.01$, *** $p<.001$

<표 4> 라이프스타일과 외모관련행동과의 상관관계

외모관련행동		라이프스타일				
		디지털성향	물질지향성	적극적활동성	성취지향성	경제지향성
외모에 대한 태도	외모에 대한 욕구	-.181	.132	.208**	.296**	.187
	외모에 대한 가치	-.146	.168	.239**	.255**	.166
	외모에 대한 동조	-.151	.196	.299**	.220**	.206**
신체만족도		-.180	.301**	.368**	.391**	.183
의복에 대한 태도	유행추구	.313**	.262**	.352**	-.114	.223**
	개성/자기표현	.187	.223**	.364**	.384**	.173
	이성의 관심유도	.172	.143	.325**	.316**	.175
	신체모습향상	.316**	.251**	.213**	.366**	.198

**p<.01

을 통한 외모개선에도 적극적임을 알 수 있었다. 라이프스타일의 경제지향성은 외모에 대한 동조와 유행추구에 대해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제지향적인 라이프스타일을 지닌 대학생들은 외모에 대한 동조가 높고 의복을 통해 유행을 추구하고자 하였다.

이상에서 볼 때 대학생의 라이프스타일은 외모관련 행동과 관련이 있었으며, 특히 적극적 활동성과 성취지향성은 외모관련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4. 외모관련행동에 대한 관련 변인의 영향력

외모관련행동에 대하여 라이프스타일과 성별 변인이 동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단계적(stepwise) 방법에 의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외모에 대한 태도 중 외모에 대한 욕구와 가치는 성별, 적극적 활동성, 성취지향성 순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각 3개 변인을 통한 설명력은 4.2%, 5.0%이었다. 대학생의 외모에 대한 욕구와 가치는 성별(-)이 큰 영향을 주었고, 그 다음으로는 성취지향성과 적극적 활동성 라이프스타일이 유의적인 영향을 주었다. 즉, 적극적 활동성과 성취지향적인 라이프스타일을 지닌 여학생이 외모에 대한 욕구와 가치를 중요시하였다. 외모에 대한 동조는 성별, 물질지향성, 적극적 활동성 순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각 3개 변인을 통한 설명력은 6.6%이었다. 대학생의 외모에 대한 동조는 성별(-)과 물질지향성 라이프스타일이 큰 영향을 주었고, 그 다음으로는 적극적 활동성 라이프스타일이 유의적인 영향을 주었다. 즉, 물질지향성과 적극적 활동적인 라이프스타일을 지닌 여학생이 외모에 대한 동조를 중요시하였다.

외모관련행동 중 신체만족도는 적극적 활동성, 성별,

성취지향성 순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개 변인을 통한 설명력은 13.2%이었다. 대학생의 신체만족도는 성별, 적극적 활동성과 성취지향성 라이프스타일이 유의적인 영향을 주었다. 즉, 적극적 활동성과 성취지향적인 라이프스타일을 지닌 남학생이 신체만족도를 중요시하였다.

의복에 대한 태도 중 먼저 유행추구의 경우 성별(-), 적극적 활동성과 성취지향성 순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3개 변인을 통한 설명력은 11.3%이었다. 대학생의 의복에 대한 유행추구에는 성별, 적극적 활동성과 성취지향성 라이프스타일이 유의적인 영향을 주었다. 즉, 적극적 활동성과 성취지향성이 높은 여대생이 유행을 중요시하였다. 개성/자기표현은 적극적 활동성과 성취지향성 순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2개 변인을 통한 설명력은 9.4%이었다. 대학생의 의복에 대한 개성/자기표현은 적극적 활동성과 성취지향성 라이프스타일이 유의적인 영향을 주었다. 즉, 적극적 활동성과 성취지향성이 높은 대학생들이 의복의 개성/자기표현을 중요시하였다. 이성의 관심유도는 적극적 활동성과 성별(-) 순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2개 변인을 통한 설명력은 7.0%이었다. 대학생의 이성에 대한 관심유도는 성별, 적극적 활동성 라이프스타일이 유의적인 영향을 주었다. 즉, 적극적 활동성이 높은 여대생이 이성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자 하였다. 신체모습향상은 성취지향성, 성별(-), 디지털성향, 적극적 활동성 순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4개 변인을 통한 설명력은 8.3%이었다. 대학생의 신체모습향상은 성별, 성취지향성, 디지털성향, 적극적 활동성 라이프스타일이 유의적인 영향을 주었다. 성취지향성, 디지털성향, 적극적 라이프스타일을 지닌 여대생이 신체모습을 향상하고자 하였다.

<표 5> 외모관련행동에 대한 관련 변인의 영향력

종속변인		독립변인	beta	t	R ²	F
외모에 대한 태도	외모에 대한 욕구	성별	-.140	-2.545**	.042	2.534**
		적극적활동성	.050	1.837**		
		성취지향성	.075	1.306**		
	외모에 대한 가치	성별	-.196	-3.575***	.050	3.075**
		적극적활동성	.020	1.345**		
		성취지향성	.023	1.397**		
	외모에 대한 동조	성별	-.170	-3.121**	.066	4.102***
		물질지향성	.109	1.955*		
		적극적활동성	.024	4.110**		
신체만족도		성별	.172	3.279***	.132	8.895***
		적극적활동성	.243	4.290***		
		성취지향성	.076	1.391**		
의복에 대한 태도	유행 추구	성별	-.191	-3.609***	.113	7.475***
		적극적활동성	.183	3.201***		
		성취지향성	.105	1.915**		
	개성/자기표현	적극적활동성	.185	3.187**	.094	6.038***
		성취지향성	.129	2.325*		
	이성의 관심 유도	성별	-.130	-2.400**	.070	4.394***
		적극적활동성	.175	2.988**		
	신체 모습 향상	성별	-.139	-2.576**	.083	5.301***
		디지털성향	.124	2.200*		
		적극적활동성	.030	1.508**		
		성취지향성	.166	2.978**		

*p<.05, **p<.01, ***p<.001

V. 결론

본 연구는 2005년 9월 중에 전라북도에 소재한 대학교에 재학중인 남녀 대학생 358명을 대상으로 대학생들의 의복 및 외모와 관련된 행동을 알아보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라이프스타일과 인구통계적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오늘날 대학생들의 외모관련 행동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라이프스타일의 차원을 알아본 결과, 디지털성향, 물질지향성, 적극적 활동성, 성취지향성, 경제지향성의 5개 요인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외모관련행동과 라이프스타일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라이프스타일에서 디지털성향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았으나, 적극적 활동성과 성취지향성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외모관련행동변인인 외모에 대한 태도와 의복에 관한 내용은 여학생이 높았으나, 신체만족도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나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셋째, 대학생의 라이프스타일과 외모관련행동과의 관련성을 조사하였다. 디지털성향의 라이프스타일은 의복에 대한 태도 중 유행추구, 신체모습향상에, 물질지향성은 외모관련행동의 신체만족도, 유행추구, 개성/자기표현, 신체모습향상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적극적 활동성 라이프스타일은 외모관련행동 모든 변인에게, 성취지향성은 유행추구를 제외한 모든 변인에게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지향성은 외모에 대한 동조와 유행추구에게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라이프스타일과 성별변인이 외모관련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적극적 활동성과 성취지향적인 라이프스타일을 지닌 여학생이 외모에 대한 욕구와 가치를, 물질지향성과 적극적 활동적인 라이프스타일을 지닌 여학생이 외모에 대한 동조를 중요시하였다. 또한 적극적 활동성과 성취지향적인 라이프스타일을 지닌 남학생이 신체만족도를 중요시하였다. 적극적 활동성과 성취지향성

이 높은 여대생이 유행을, 적극적 활동성과 성취지향성이 높은 대학생들이 의복의 개성/자기표현을 중요시하였다. 적극적 활동성이 높은 여대생이 이성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자 하였으며, 성취지향성, 디지털성향, 적극적 라이프스타일을 지닌 여대생은 신체모습향상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볼 때 대학생의 라이프스타일은 외모관련 행동과 관련이 있었으며, 특히 적극적 활동성과 성취지향성은 외모관련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대학생일수록 타인과의 관계를 의식함으로써 외모개선을 위해 노력하며 그 결과 자기 신체에 대하여 만족하게 되고, 자신의 신체에 만족하는 대학생들이 신체에 대한 자신감을 지니므로써 사회생활에 더욱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대학생들의 외모관리는 적극적이고 성취지향적인 생활양식과 관련성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앞으로 사회의 주역이라고 볼 수 있는 대학생들이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생활양식을 지니고 외모에 더욱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 외모관련 행동에 도움을 주고 지나친 외모지상주의에 빠져들지 않도록 하는 교육적 차원에서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측정도구가 표준화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과, 특정지역의 대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는 점이다. 따라서 앞으로 후속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의 연령층을 더욱 확대하여 라이프스타일과 외모관련행동과의 관계를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며, 대학생의 외모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환경을 폭넓게 파악하는 것이 요구된다.

주제어 : 대학생, 외모관련행동, 라이프스타일

참 고 문 헌

고애란, 김양진 (1996) 청소년의 의복행동에 대한 자아중심성, 자아의식, 신체만족도의 영향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0(4), 667-681.

권보애, 오현정 (2004) 성격유형별 의복 라이프스타일과 의복구매행동. *한국의류학회지*, 28(7), 927-938.

김동기 (1993) 현대마케팅원론. 서울:박영사, 323.

김미영, 이은영 (1992) 생활양식요인과 의복선택 기준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6(1), 3-21.

김선희 (2003) 신체이미지와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연구. *복식*,

53(1), 87-98.

김성환, 김봉관, 윤보석 (1992) 캐주얼웨어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 유형별 구매행동 특성에 관한 연구. *경영논총*, 13, 51-66.

김양진 (1996) 유행의복이미지가 개인의 자아개념과 의복태도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용주 (1999) 여대생의 체중조절 행동과 의복만족도 및 신체노출 의복행동의 관련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재숙, 이미숙, 김은정, 이해원 (1999) 신체이미지가 체중조절 및 외모관리 행동과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 *충남생활과학연구지*, 12(1), 20-36.

김정순 (2002) 여대생의 헤어스타일 행동에 대한 선호이미지 연구. 경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나영주, 이은희, 장경자 (2004) 대학생의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른 신용카드 사용과 의복구매. *한국의류산업학회지*, 6(5), 585-594.

박남규 (1997) 의복관련 라이프스타일과 의류구매 행동 분석에 관한 실증적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만석 (1999) 패션 의복 관련 라이프스타일이 고객만족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우미 (2000) 신체에 대한 의식과 만족도에 대한 한국과 미국 여대생의 비교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4(5), 736-747.

박정은, 정수진, 강경자 (2005) 신체만족도, 의복태도에 따른 여대생의 충동구매와 심리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14(6), 985-994.

박주비, 정옥임 (2005) 여대생의 신체적 특징에 따른 의복행동 및 헤어스타일 행동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3(6), 77-112.

배혜진, 강윤정, 김대옥, 정인희 (2005) 남자 대학생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캐주얼 스타일 선호. *복식*, 55(1), 86-100.

백희영, 남윤자, 박재경, 김주연 (2000) 신체에 대한 의식과 계측자료에 의한 여대생들의 체형비교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8(3), 59-70.

서혜원 (2003) 청소년기 여학생의 자기이미지가 의복행동 및 상표선택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화숙, 송정아 (2004) 여대생의 신체적 특성에 따른 신체만족도 및 의복만족도, 외모관리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산업학회지*, 6(5), 329-335.

송원영, 이명희 (2001) 인터넷 쇼핑에서의 의복구매행동과 라이프스타일과의 관계 연구 -인터넷 이용자를 중심으로-. *복식문화연구*, 9(4), 602-615.

심정은 (1996) 청소년의 자의식 및 체중조절행동과 의복행동과의 관련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창민 (1999) 인터넷 사용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정보 탐색유형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명희 (2003) 청소년의 외모관련행동과 라이프스타일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7(9/10), 1101-1111.
- 이연희 (1996) 유행선도력과 의복 및 신체만족도와의 상관 연구 -이화여자대생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주, 임숙자 (2001) 여대생의 체중조절행동과 의복의 만족도 상관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5(1), 13-24.
- 이은희 (2003) 고등학생의 심리적 특성과 외모에 대한 태도가 의복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12(2), 237-251.
- 이인자, 이경희, 신효정 (2001) 의상심리. 서울: 교문사.
- 임경복 (1991)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의복구매행동에 관한 연구 : 여대생의 시간 소비 유형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경복, 임숙자 (1993)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의복구매 행동에 관한 연구 -여대생의 시간소비 유형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17(3), 369-366.
- 전경란 (2002) 여성의 욕구, 자아존중감과 성형 및 의복태도의 관련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전경란, 이은희 (2005) 청소년의 욕구가 성형 및 의복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14(1), 119-132.
- 정옥임 (1993) 개인적 인식에 의한 인지 체형과 실제 체형과의 비교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1(1), 153-162.
- 정용희, 김창현 (2000) 남자 대학생의 신체외식과 의복행동에 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8(3), 460-476.
- 정인희, 이은영 (1996) 의복과 자기이미지. *한국의류학회지*, 20(1), 207-217.
- 정혜영 (1995) 패션 라이프스타일에 의한 여대생 의류시장 세분화: 패션정보원 의복추구이점, 상선선택기준. *복식문화연구*, 3(2), 393-408.
- 조선명 (1999)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와 신체이미지가 의복추구태도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채서일 (1992) 체계적 분석의 틀에 의한 라이프스타일 연구. *소비자학 연구*, 3(1), 46-63.
- 채정숙 (1999) 라이프스타일의 비교문화적 연구 -한국과 캐나다 거주 대학생들의 라이프스타일 특성을 중심으로-. *소비자학연구*, 10(1), 79-98.
- 채정숙 (2001) 여대생의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른 화장품 구매 및 사용행동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9(11), 107-128.
- 황진숙 (1998) 신체만족도와 이상적인 신체상의 중요성이 의복추구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2(3), 293-302.
- 황진숙, 이기춘 (1998) 남자대학생의 라이프스타일 요인이 의복의 구매동기, 정보원 활용, 의복선택 기준에 미치는 영향 연구. *복식*, 50(4), 63-72.
- 황진숙, 영화영 (2006) 청소년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의복 선택성향과 의류제품의 인터넷 구매행동. *한국의류학회지*, 30(1), 71-82.
- Alfonso, VC, Allison, DB, Rader, DE & Gorman, BS (1996) The Extended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Development and psychometric properties. *Social Indicators Research*, 38, 275-301.
- Alport, GW (1965) *Pattern and Growth of Personality*. Holt, Rinehart and Winston: N.Y.
- Cash, TF (1990) *The Multidimensional Body-Self Relations Questionnaire*. in Thompson, JK (1990) Body image disturbance. New York: Pergamon Press.
- Carmen, JM (1978) Values and Consumption Pattern
- Goffman Identity Kits, in ME Roach and JB, Elcher (1965) *Dress Adornment*. The Social Order, New York, 246.
- Gutman, J & Mills, MK (1982) Fashion Lifestyle, Self-Concept, Shopping Orientations, and Store Patronage: An Interrogative Analysis. *Journal of Retailing*, 58, 68-85.
- Heinberg, LJ, Thompson, JK, & Stormer, SM (1995)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sociocultural attitude towards appearance questionnaire.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17(1), 81-89.
- Horn, MJ (1975) *The second skin*(2rd ed.). Boston: Houghton Mifflin.
- Horn, MJ, & Gural, LM (1981) *The second skin: An interdisciplinary study of clothing*(3rd ed.). Boston: Houghton Mifflin.
- Kim, J, & Lee, M (1998) The Effects of Body Image, Body Satisfaction and Some Selected Dimensions of Clothing Behaviors of 3 Different Adolescent Age Group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Costume*, 1(1), 1-13.
- Lazer, W (1968) Life style concepts and marketing, in marketing and its environment: some issue and perspectives, ed., Richard A. Scott NE Marks, Calif: Wadsworth.
- Levy, SJ (1963) *Symbolism and Life-Style*. Chicago: American Marketing Association.
- Richards, EA & Hawthorne, RE (1971) Values body cathexis and clothing of male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Home Economics*, 63(3), 190-194.
- Roach-Higgins, ME, Eicher, JB & Johnson, KKP (1995) *Dress and identity*. New York: Fairchild

Publication.

- Salem, SK (1990) Perceived body image, importance of ideal body image, self-esteem and depression in female college stud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alifornia School of Professional Psychology, Los Angeles.
- Secord, PF & Jourard, SM (1953) The appraisal of body cathexis: Body-cathexis and the self.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17, 343-347.
- Sontag, M. & Schalter (1982) Proximity of Clothing to Self: Evolution of a Concept.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1(2).
- Thompson, JK (1996) Assessing body image disturbance: Measures, methodology, and implementation. In JK Thompson (Ed.). *Body Image, Eating Disorders, and Obesity*(pp. 49-82).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Wells, WD (1975) Psychographics: A Critical Review.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2, 196-213.

(2007. 01. 23 접수; 2007. 05. 24 채택)